



복음의 기쁨을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하느님 말씀을 따라

연중 제14주일
2021. 07. 04. (나해) 제2275호

대구주보



꽃아란 하늘아래
주님의집 윤일성당을보며
Bernard 2021. 5

윤일성당 | 그림 _ 서원만 베르나르도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제1독서 에제 2,2-5 **화답송** ◎ 저희는 주 하느님을 우러러보며 당신 자비만을 바라나이다. **제2독서** 2코린 12,7L-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이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 알렐루야. **복음** 마르 6,1-6 **영성체송**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너희는 맛보고 깨달아라. 행복하여라, 주님께 바라는 사람!

남다른 힘



소화분당 주임 | 도희찬 대건안드레아 신부

“남자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바치고, 여자는 자기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위해 일생을 바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남녀의 성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목숨을 바치고 일생을 바치게 만들 만큼 인정받는 일과 사랑받는 일이 우리네 인생에서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새삼 일깨워주기도 합니다.

나를 인정해 주고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사는 게 힘들거나 삶의 무게에 짓눌려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인정받는 사람은 늘 자신 있고 당당합니다. 사랑받는 사람은 늘 기쁘고 든든합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은, 것처럼 우리네 인생에서 살맛 나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신앙은 무엇보다 하느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런 신앙으로 인해 우리들은 더욱 살맛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서는 고향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사랑받지도 못하십니다. 그럼에도 당신의 길을 곳곳이 걸어가실 수 있었던 것은 누구보다 하느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 겁니다. 하느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믿는 사람은 또한 자신이 받은 인정과 사랑을 베풀게 됩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사람들 눈에 하찮은 인생으로 보이는 이들이라도 결코 소홀히 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께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두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셨습니다. 나아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느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소중한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느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는 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짚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구보다 하느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있음을 자부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과 참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쩌면 머리로 아는 만큼 가슴과 삶으로 베풀지 못했기에 편협한 교만함과 집단 이기주의로 흘러버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하느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고 있음을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게 전부라면 유대인들과 별반 다를 게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분처럼 나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사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음을 진정으로 자부한다면,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로 인해 우리들은 세상의 인정과 사랑 없이도 곳곳이 이 길을 걸어갈 남다른 신앙의 힘을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할 때 이 신앙의 길이 우리가 진정 주님의 인정과 사랑을 받고 살아가는 행복한 삶이요, 또한 그것을 전하며 세상을 살맛 나게 하는 아름다운 삶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필문**

늘 새로운 길을 걷는 사람들

교구 민족화해위원회 | 장 루시아 수녀

북한이탈주민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이 북쪽일 뿐, 우리와 같은 언어를 쓰는 한 민족, 동포입니다. 서로 말은 통하지만, 70여 년간 남북이 오랜 분단과 대결의 상황을 유지하기에 어쩌면 외국보다 더 심리적 거리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두려움의 큰 부분은 모른다는 것에서 기인합니다. 실제로 북한이탈주민들을 만나보면 우리가 얼마나 헛된 두려움과 많은 오해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고 싶은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편견을 걷어 내는 방법입니다. 북한이탈주민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일이 그들에게 다가가는 방법이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이탈주민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곳은 아는 이 하나 없는 낯선 곳이며, 새로운 시스템에 적응해야 하는 사회이며, 직장을 구하거나 학업을 다시 시작해야 하는 힘겨운 삶의 현장입니다.

수영(가명)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30대에 접어든 나이에 공단에서 5년간 일해 마련한 자금으로 간호대학에 입학하였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던 학교생활은 공부 외에도 수많은 난관이 존재했습니다. 입학하고 만난 20대 초년생 동기들과 같은 말을 하지만 정서적으로 소통하기가 힘들었고, 음식 취향도 너무나 달라 친해질 계기를 만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특히 동기생들과 조별 과제를 이행할 때는 서로가 고통스러웠습니다. 수영은 마치 동기생들이 브랜드 운동화를 신고 전력 질주하는 현장에서 자신만 슬리퍼를 신고 허들 경기를 치르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이런 수영과의 만남은 제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편견과 마주하게 했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여성이 혼자 공부한다면 가난이 가장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수영은 경제적 가난보다는 학업을 이어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 주는 일이 더 절박하고 시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업의 이해를 위한 연습과 복습을 동반하는 과외 봉사자, 여가를 함께 할 친구 등의 인맥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수영은 간호사 국가고시에 합격하여 새로운 삶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얼마 전 만난 수영의 모습은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당당한 전문직 여성으로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복해 보였습니다.

이 지면을 통해 북한이탈주민들의 정착 지원 활동을 하시는 봉사자들과 후원해 주시는 모든 은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벗, 수영의 삶의 여정에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심을 알기에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 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펴리라.’

- 이사 42,3 -

※ 대구대교구 민족화해위원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기도운동과 여러 형태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겨자씨 자라나서 큰 나무되듯

‘겨자씨성서모임’

겨자씨성서모임 담당 | 박성희 엘리사벳 수녀

“주님의 말씀은 우리 각자의 모습을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이 됩니다.”(야고 1,22-25 참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싶은 영적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세례 때의 첫 열정이 식어가고 바쁜 일상에 쫓겨 신자로서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거나, 본당 활동도 나름 열심히 하면서도 뭔가 부족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더 간절히 찾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의 거울을 통해 우리의 내면을 비춰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 남구 현충로 2(대명동)에 위치한 ‘겨자씨성서모임’이 여러분과 함께 동반하고 싶습니다. 올해로 26년이 된 이 모임은 1995년에 있었던 예수성심시녀회 창설 60주년을 맞아 수도회가 하나님의 섭리로 성장하였음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사랑에 더욱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시대적 사명의식과 신자들의 믿음을 키우고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겨자씨는 작지만 성장하여 하늘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 것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비록 작은 겨자씨 같은 우리의 성경공부가 성장하여 가정과 사회, 우리나라와 온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리라는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겨자씨성서모임을 수료한 많은 학생들은 오늘도 각자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선포하며 투신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은 구약 2년, 신약 2년, 심화과정 4년이며, 구약과 신약을 졸업한 대상자에 한하여 이루어지는 심화과정은 성경의 전반적인 지식을 여러 가지 기도를 통해 내면화시켜 하나님과 일치할 수 있도록 안내주는 기도 수련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년 1학기는 3월 초에 개강을 하고 2학기는 9월 초에 개강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로 확실한 미래를 향해 불확실한 현재를 거슬러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제2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려면 예수님을 잘 알아야 하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공부를 하며 말씀에 젖어드는 은총의 장소인 ‘겨자씨성서모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필문**

	교과과정	내용
본과	구약 2년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시서와지혜서
	신약 2년	사복음서, 사도행전, 서간, 묵시록
심화	구약 1년	모세오경과 역사서와 함께하는 기도 과정
	신약 3년	신약성경과 일상 안에서 기도 수련

‘문철’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던 유문석(柳文碩) 요한은 전라도 전주의 초남(현 전북 완주군 이서면 남계리)에 거주하던 부유한 양반 집안에서 1784년에 태어났다. 1801년의 신유박해 순교자인 유항검 아우구스티노는 그의 부친이고, 유중철 요한은 그의 형이며, 이순이 누갈다는 그의 형수가 된다.

유문석 요한의 집안에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이게 된 것은, 한국 천주교회가 창설된 직후 부친 유항검이 경기도 양근에 살던 인척 권일신 프란치스코 하비에르로부터 교리를 배워 입교하면서였다. 이후 부친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널리 교리를 전하였고, 그의 집은 전라도 신앙 공동체의 중심지가 되었다.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요한은 어릴 때부터 신앙 안에서 자라나게 되었다.

1795년 주문모 야고보 신부가 초남 마을을 방문하였을 때 요한의 나이는 열한 살이었다. 그리고 2년 뒤에는 그의 형 유중철과 이순이가 동정 부부가 되기를 서약하고 혼인을 하였다.

1801년 박해가 일어났을 때, 요한의 부친 유항검이 가장 먼저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되었고, 이어 유중철과 친척들이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혔다. 이때 요한은 다행히 체포되지 않았으므로 여름 내내 전주 옥을 오가며 형에게 음식을 전해 줄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 해 9월 중순 무렵에는 유문석 요한도 남은 가족들과 함께 체포되어 전주 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는 이때 가족들과 함께 순교를 약속하면서 굳게 마음을 다졌는데, 그 내용은 그의 형수 이순이가 옥중에서 쓴 편지에 기록되어 있다.

“우리 다섯 사람은 모두 이구동성으로 천주를 위해 순교하자고 언약하고, 철석같이 굳은 결심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를 한 결과 우리의 원의가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므로 ... 자연히 온갖 후회와 근심 걱정이 잊혔습니다. 날이 갈수록 천주의 은혜와 은총은 쌓이고, 우리 마음에는 신락(神樂)이 더해지며, 아무 걱정도 남아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이어 전주 관장은 요한과 그의 가족에 대한 판결을 조정에 요청하였고, 조정에서는 즉시 이를 담당할 관리를 전주로 파견하였다. 그 결과 요한은 11월 14일(음력 10월 9일)에 옥에서 끌려 나와 형 유중철과 함께 교수형을 받았으니, 당시 그의 나이는 17세였다. 이때까지 그는 결혼을 하지 않았었다.



유문석 요한
(1784 ~ 1801년)

교황청과 함께하는 '백신 나눔 운동' (~ 2021. 8. 21(토)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 비용을 기부하면 교황청을 통해 가난한 나라에 전해져 전 세계 어려운 이웃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성금은 백신 비용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기부할 수 있습니다.

후원계좌 : 대구은행 504-10-413509-7 예금주_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053)423-3008



15. 가정의 현실과 도전 ⑥

출산을 기피하는 정서와 널리 퍼진 피임 정책에 따른 인구 감소 또한 세대교체가 더 이상 보장되지 않는 상황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경제적인 빈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의 상실을 가져올 위험이 있습니다. 생명공학의 발전, 산업화, 성 혁명, 인구과잉의 공포, 경제적 문제와 같은 요인들, (특히 소비주의는 또한 사람들이 그저 자신의 자유와 삶의 방식을 유지하기 위해서 출산을 단념하도록 이끌 수 있습니다. ... 고독, 사회적 경제적 현실 앞에서 느끼는 무력감 등 사회구조의 차원에서 그 부정적 영향은 자명합니다. 국가는 젊은이들의 미래를 보장하고 그들이 가정을 이루고자 하는 계획을 실현하도록 법적 조건을 마련하고 노력할 책임이 있습니다.(『사랑의 기쁨』 42~43항)



함께 가자, 생명의 길로! - 말씀과 함께하는 생태발자국 줄이기

가까운 거리는 걷거나 자전거 타기 (마르 6,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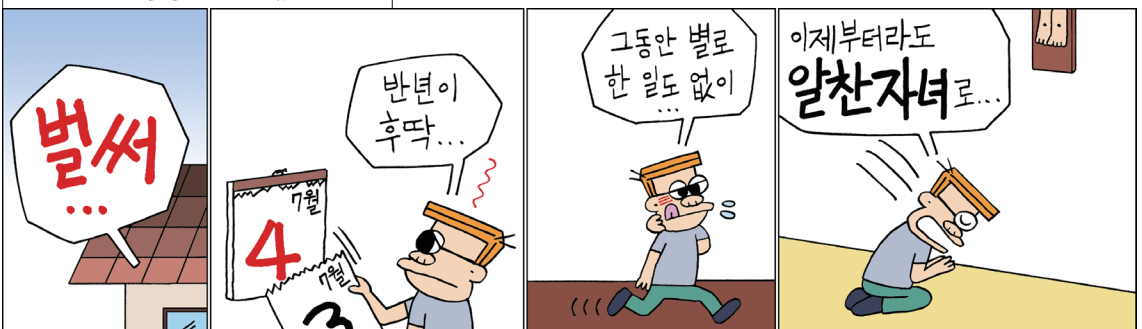
교구 평신도위원회 & 생태환경위원회 제공

말씀의 해 안내지 25호 정답

1. 호세아, 아시리아 2. 소리, 계약, 모세, 실천 3. ㉓ 4. 히즈키야, 므나쎄, 요시아, 치드키야

아직도 반년은 남아 있으니

박성규 엘리시오



미사 안내

경주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7월 5일(월) 11:00 성동성당	꾸르실리스따 월례미사	7월 5일(월) 19:30 꾸르실료교육관
대구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7월 5일(월) 11:00 계산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10일(토) 10:00 월성성당
포항지역 교정사목 후원미사	7월 5일(월) 11:00 죽도성당	-	-

성소 | 피정

가르멜수도회 성소 모임

상담: 상시

장소: 서울가르멜수도원

문의: (010)2140-7414

대구가르멜여자수도원 성소 상담

대상: 20~30대 성소에 관심있는 분

상담: 필요시 언제나 방문 가능

문의: (010)3375-4408

carmeldg@hanmail.net

성골롬반외방선교회 평신도선교사

관심자 모임

일시: 7.11(일) 14:00~17:00

장소: 평신도선교사센터(서울) / 비대면

대상: 해외선교에 관심있는 24~40세

문의: 노혜인 선교사, (010)3817-0567

한국외방선교수녀회 해외선교 모집

대상: 수도생활과 해외선교에

관심 있는 미혼 여성을 초대합니다.

문의: 노아 수녀, (010)9353-1773

제주면형의집 피정

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사와 함께

제주 성지순례, 미사, 올레길·오름트레킹

일시: 7.23~25 / 7.30~8.2 /

8.5~8 / 8.12~15 / 8.21~23

신청: (02)773-1463 / (064)756-6009

교육 | 모집 | 기타

Zoom 온라인 기도모임

일시: 7.9(금) 20:00, 7.17(토) 19:00

대상: 40세 미만 젊은이

주관: 예수성심전교수도회·수녀회

문의: (010)4386-3103

C.P.E(임상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8월 말~12월 중순 10:00~17:30

매주 화, 목, 토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신·타인 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80만원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996-5508

대구대교구 SNS 안내 (Social Network Service : 사회 관계망 서비스)



카카오채널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레이저 백내장 노안수술, 근시교정 수술

대구안과

DAEGU EYE CLINIC

의학박사 전문의 이 호 성(아오스당)
의학박사 전문의 조 영 수(다미아노)
전문외과 전문의 홍정훈(대전안드레아)

☎(053)651-2233

남구 월배로 468 (구)달성군청자리

리스토리결혼정보

결혼 칼럼 연재중 | 리스토리TV 유튜브 진행
인동 MBC, 아시아뉴스통신 방송 다수출연

23년 전문 ♥ 성혼시까지 맞선

대표 이현숙 수진나 (교육학 박사)

M. 010.6571.3385
T. 053.586.3220

한국성지 167 완주

(주)마카렐여행사 Michael Tour

7.19(월)~7.22(목) 대전교구
8.23(월)~8.26(목) 부산·마산교구

제주성지순례 3일/4일

7.26(월)~7.29(목) 8.9(월)~8.12(목)
8.13(금)~8.15(일) 8.16(월)~8.18(수)

마카렐여행사 ☎ 010-8650-9690
www.michaeltour.co.kr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점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하지정맥류인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메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서만수

예쁜누네성형외과

DR. SUM'S PRETTY EYE PLASTIC SURGERY CENTER

원장 서만수 (주파)
눈성형 | 코성형
필러, 보톡스 | 진료문의. 216-7345

대구 중구 중앙대로 366
반월센트럴타워 8층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 원장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치질/내시경(위·대장) 건강검진

산격시장앞 ☎ 053-959-7175
010-9597-7175

보건복지부 지정

척추전문병원

척추·어깨·무릎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송현역 2번 출구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김영옥(요한) 신부
1996년 7월 4일
- 이종필(마티아) 신부
1954년 7월 4일
- 권유량(마리오) 신부
1944년 7월 6일

행사 | 모임

예비신학교 하계 사제성소 피정

고3·대학·일반: 7.24(토) 9:00~17:00
중3~고2: 7.31(토) 9:00~17:00
중1~중2: 8.1(일) 9:00~17: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신청: 각 본당사무실 / 마감: 7.18(일)

선교게이트볼 7월 친선대회

일시: 7.13(화) 9:00~13:00
장소: 대구 중구 대봉교구장(인조잔디)
대상: 회원·냉담회원, 비신자(당일접수)
회비: 무료(중식, 간식제공)
문의: 선교회장, (010)3519-0109

교육 | 모집

대덕성당 반주자(유료) 모집

문의: 626-3138

2021 후기2차 대구가톨릭대 대학원생 모집

원서접수: 6.28(월)~7.7(수)
모집: 일반, 특수대학원

문의: 850-3582(일반), 660-5252~4(특수)
http://www.cu.ac.kr

35회 글로벌 온앤오프 국내 영어캠프

일시: 7.17(토)~8.14(토) 4주
대상: 초등 3학년~중등 3학년
주최: 대구광역시청소년수련원
문의: 국제교류팀, 593-1273
화상영어 상시 모집중

청소년 무료 자격증 취득, 진로체험 모집

1차: 7.18(일) / 2차: 수시
대상: 학교 밖, 후기 청소년
과목: 영상, 플라워, 내일아트, 베이킹, 바리스타, 가죽공예 / 문의: 474-4840
주최: 대구청소년창의센터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연필초상화, 제대꽃꽂이, 캘리그라피, 서양화, 일반꽃꽂이, 갈라바, 문인화, 발성법, 우쿨렐레, 섬유공예, 오카리나,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주일 성령묵상회(3주 과정)

일시: 7.11~25 매주 일 9:30~18:30
장소: 대구성령봉사회관(고령 월막)
비용: 12만원 / 문의: (010)9045-0191

채용 | 안내

대구가톨릭요양원 요양보호사 채용
장기요양평가 최우수기관

위치: 달성군 논공읍
대상: 58세 이하

문의: 616-2141 / 615-2141

교구 법원 공시

아래에 공시되는 분은
교구 법원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장세훈(레오), 김재철
문의: 교구 법원, 253-9550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보험공단검진

질병의 조기발견과 다양한 검진을
통해 건강한 삶을 지키십시오.
1차, 암 검진(암 검진은 예약 필수)
문의: 650-4591(8:00~17:00)

전인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위·대장내시경검사에서 진료까지
당일진료 가능합니다.
검진센터: 670-5959 (09:00~17:30)

칠곡가톨릭병원 국민건강보험공단검진

대구가톨릭대학교 칠곡가톨릭병원에서
6대 암 검진 및 일반검진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 문의: 320-2061
http://www.tcmccch.co.kr

2021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 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접수: 교구 문화홍보국
문의: 250-3048~9

일월매트총판 | 대형선공기
이동식어어컨 | 게르마늄매트
소금좌욕기 | 전자제플
(주)매일프라자
김홍은(요셉) 010-9804-8008
유통단지로 45 전자관 1층 239호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다열린병원
THE OPEN HOSPITAL
— 신축 확장 이전! —
관절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T. 555-5520 죽전역 4번 출구

37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네거리~광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족부전문정형외과의원
(발·발목·스포츠 질환)
모 만족정형외과
원장 최재혁(요한)
☎ 053-255-8119
3호선 범물역 2번출구 (능림방향 100m)

공공직영도매(동고령IC)
삼우싱크
이웅해(스테파노) 박현미(마리아)
전시장: 대구 용산점, 칠곡 구암점
싱크, 불박이, 신발장, 각종수납장 인테리어 및 주택수리
010-2866-0277 | 010-3336-9567

Seong Seo SOK Internal Medicine
성서속내과
건강보험공단검진, 암검진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술
한번에 편안하게!!
당도·고혈압
소화기·내시경
원장/전문 의 김명섭(베드로)
성서메가타운 2층 ☎ 586-7572
2호선 성서산업단지역 7번출구

힐스피부과
색소·여드름·프링·알러지·시마귀·피부종양
원장 박상훈(요셉)
☎ 053)431-3377
대구 2,3호선 청라언덕역(성모당) 9번 출구
척탑병원 3층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저운창고·고추건조기
할부가능(12개월, 24개월)
김원(토마스) 010-5623-9001